

# “광주교육감배 유소년축구대회 신설 긍정 검토”

이정선 교육감, 광주 13개 유소년축구팀 전체 선수단과 직접 소통 선수·학부모·지도자 등 200여명 참석...스포츠클럽 육성 관심 약속 상급학교 진학 어려움·스포츠 사교육비 부담 등 애로 사항 건의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교육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광주지역 13개 초·중학교 유소년축구팀 전체 선수단과 학부모, 지도자와 직접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광주교육감배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스포츠 클럽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4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유소년축구대회’와 함께 하는 ‘광주교육 소통한마당’을 열어 선수단을 격려하고, 학부모와 지도자로부터 유소년팀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소통한마당에는 광주송정서FC, 월곡FC 등 초등 10개팀과 광주북성FC U15 등 중등 3개팀 등 선수단과 학부모, 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이 직접 주재한 소통대회에서 광주하남중앙초교 선수단 학부모는 “광주에 유일한 초등학교 여자 축구팀이 하남중앙초교인데, 이들이 졸업하면 상급학교 축구팀에 진학 할 방법이 없다”고 현 여자유소년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유소년 여자축구팀 뿐만 아니

라 초등축구팀도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초등팀은 9개인데, 정작 중학팀은 3개, 고교는 1개 밖에 없어 어린 나이에 타지로 나가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초등팀 선수 학부모는 “학교에서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한 초, 중학교 3개팀은 그나마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클럽들은 사실상 학원스포츠로 규정돼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광주북성FC U-15팀 감독은 “광주유소년 축구팀의 발전과 광주축구 전체의 생태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 교육당국에서 관심과 함께 최소한 훈련용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소년축구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여자축구팀 신설, 상급학교 진학 어려움, 훈련용품 등 최소 지원 검토, 축구팀 운동장의 확보, 스포츠 사교육비 부담 등을 거론했다.

이 교육감은 “축구협회와 지도자들이 제안한 광주 교육감배 유소년축구대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미래 한국축구를 책임



이정선(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4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유소년축구대회’와 함께 하는 ‘광주교육 소통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축구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질 선수들이 광주 유소년축구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자체 운영이 가능한 종목은 우선해서 전문 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한다는 게 교

육청의 방침이며, 자생 가능한 전문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유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광주축구협회 정의환 부회장, 이병권 사무국장 등 축구협회 임직원들도 참석

해 교육청, 축구협회, 유소년축구팀 간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광주교육청은 광주FC 구단 임원진과도 만나 유소년축구 활성화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체육회 수구팀, 싱가포르 꺾고 방콕 초청대회 우승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이 방콕 초청 수구대회에서 싱가포르팀과의 접전 끝에 오픈부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은 지난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방콕 추랍혼 아쿠아틱 클럽 (Chulabhorn Aquatic Club)에서 열린 ‘2023 방콕 초청 수구대회’ 결승에서 싱가포르 SGP를 상대로 13-12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포함해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괌, 말레이시아, 대만 등 총 9개국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치러졌다.

예선 조별리그에서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팀을 상대로 승리한 전남도는 태국 CAC에 8-7로 패하며 5승 1패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호주 NSW에 6-5로 승리한 전남도는 결승에서 싱가포르팀 SGP팀을 만났고, 치열한 접전 끝에 13-12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이 ‘2023 방콕 초청 수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 방콕 초청 수구대회 제공>

팀을 우승으로 이끈 진만근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한 우승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선수들이 한층 더 강해지고

성장해 다음엔 이보다 더 큰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전남 유도 위상 높인 세한대...홍콩 오픈대회 은 1·동 2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2023 홍콩 아시아 오픈 유도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유도 위상을 높였다.

전남도체육회는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최근 홍콩에서 끝난 ‘2023 홍콩 아시아 오픈 유도대회’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동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민성은 +100kg급에서 몽골의 페렌레이츠를 발다리 되치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결승전에 올랐고, 한국 송우혁에게 안오금피기로 한판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지원은 -60kg급 8강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페드로 카를로스를 만나 팔가로우워격기로 한판패하며 패자부활전을 준비했고, 이후 쿠웨이트의 하산 하비브를 경기시작 1분만에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제압하며 동메달을 땀. 정한결은 -100kg급 패자부활전에서 한국 김민규를 만나 소매업어치기 절반승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함께 출전했



‘2023 홍콩 아시아 오픈 유도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따낸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대회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던 최승일, 박창민, 유병현, 김보민, 윤정완도 선전했지만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세한대 노박환 감독은 “좀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하다.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적극적인 공격태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처남·매제 한날 동시에 ‘MLB 포스팅’ 이정후·고우석 내년 1월 4일까지 협상



이정후



고우석

처남 매제 관계인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와 고우석(LG 트윈스)이 한날 동시에 미국프로야구(MLB) 30개 구단과 협상 가능한 선수로 포스팅됐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밥 나이팅게일 기사는 5일(한국시간) X(옛 트위터) 계정에 “고우석이 막 포스팅됐다”며 “그의 협상 기간은 미국 동부 시간 5일 오전 8시(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부터 내년 1월 3일(한국시간 1월 4일)까지”라고 전했다.

이는 전남 키움 구단이 발표한 이정후의 협상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키움 구단은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고지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일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MLB 사무국이 30개 구단에 이정후 포스팅을 고지하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 오후 5시까지 이정후는 MLB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정후의 MLB 진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짜는 미국 동부 시간 5일 오전 8시, 한국시간으로는 5일 오후 10시이며, 협상 만료일은 미국 동부 시간 다음 달 3일 오후 5시, 한국 시간은 다음 달 4일 오전 7시다.

고우석도 이정후와 똑같은 날짜에 포스팅된 것으로 확인돼 둘은 같은 길을 밟는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 LG 코치의 아들과 사위가 동반 빅리그 진출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 셈이다.

빅리그는 먼저 KBO리그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이정후를 집중 조망했다.

7시즌 동안 이정후가 KBO리그에서 남긴 통산 성적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정후는 7시즌 동안 1181안타 0.340의 타율을 기록했다. 65개의 홈런을 날리며 515타점도 올렸고, 장타율 0.455·출루율 0.406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다년 계약으로 6000만~90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다.

이정후와 특수 관계이면서 대포알 강속구로 LG의 뒷문을 5년 내리 잡고 통산 139세이브를 올린 고우석도 서서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LG 구단은 이적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고우석의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MLB 도전을 조건부로 허락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서울의 봄, 나폴레옹
3관	싱글 인 서울
4관	서울의 봄, 뉴클리어 나우
5관	서울의 봄, [워드키즈]극장판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진정한 용기!
6관	서울의 봄
9관	나폴레옹, 교도에서 온 편지
7관 씨네마	3일의 휴가
8관 씨네마	나폴레옹, 프레디의 피자가게, [워드키즈]극장판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 진정한 용기!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412-2502

즐거움  
**문화산책**